

2022 OPEN! VI.

약속의 땅! 구경하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

1. 종과 아들의 차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다. '안식'을 주기 위해서이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간 그들의 정체성이 삶이다. 종은 안식이 없다. 쉴 수 없다. 고단할 뿐이다. 고단한 인생에 소망과 행복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표는 '안식'을 찾는 것이다. '정체성과 안식'이 함께라는 것이다.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고단함이다. 종의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이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단함을 풀어내는 구원을 통해 사건으로 보이셨다. 홍해를 통과할 때 애굽의 종의 정체성이 죽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 예전에는 '열심'과 '노력'으로 내 행복을 이루려 했는데, 이제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이다. 하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1) 만나 - 약속의 아들

[신명기 8: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징표가 '만나'이다. 만나를 떡이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다. 떡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의 정체성은 생존형 인간). 그래서 떡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된다. 떡이 안정감이다. 떡이 많으면 안정감이 있고, 떡이 없으면 불안하다. 그런데 '만나'는 단순한 떡이 아니다. 만나의 출처는 땅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신명기 8:3절에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분명하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 또한 사람으로 광야에서 '떡'의 시험을 받으셨다. 사탄의 시험은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다. 사람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 즉 새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신명기 8:3절에 기록된 '만나'를 통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

'만나'는 무엇인가? 만나의 의미는 '말씀'이다. 말씀은 '약속'을 말한다. 약속은 신뢰이다. 오늘 만나를 다 먹어도 내일 아침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종'은 불안해서 신뢰할 수 없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신뢰한다.

(2)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이다.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종은 절대 불안해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다. 이유는 불안하다. 아들이 아니라 생존형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이삭의 순종에 어린양 예수님이 계시된다.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죽음을 이긴 절대 신뢰의 관계이다. 아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향한 절대 믿음이 아버지를 향한 신뢰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

[히브리서 3:14]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구원의 핵심은 '아들됨'에 있다.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으로 완성된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구원'은 누리는 것이다. 구원은 승리이다. 안식이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면 누릴 수 없다. 아들 안에 있는 권세는 자유함이다.

2.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히브리서 3:16-19] 16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17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18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19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약속의 땅. 18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결국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 (18절) = 반역한 사람들 (16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 (17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18절). 오늘 말씀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한다. (19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도 아니다. 용사가 아니기 때문도 아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한다. 아들이 아니라 '중'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3. 약속의 땅은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야 하는 땅

[민수기 13: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약속의 땅을 얻었던 갈렙에게 약속의 땅은 구경하는 땅이 아니라 들어가야 하는 땅이다. 더 나아가 취해야 하는 땅이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에게 약속의 땅은 구경하는 땅, 본 것에 안주하는 땅이었다.

(1) 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의 실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에 집중했다. 여기에 실수가 있다.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집중해야 한다.

[신명기 6:23]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내가 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신명기 6:23절의 말씀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셨다. 집중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으신 이유가, 약속의 땅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눈에 보이는 거인들이다 (아낙의 자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이유는 그들에게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주었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오늘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하나로 말한다 (히브리서 3:19절- 불신 / 믿음 - 믿지 못했기 때문)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 거인,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누구를 기억하는가?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은 이름도 모른다. 그러나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이름을 기억한다.

(2) 나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이 된다.

왜 나를 보는 시각이 중요한가? 약속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이지 않다.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모든 것이 된다.

[민수기 13: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원리).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남이 나를 보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원수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한다. 내가 나를 메뚜기로 보면 사탄은 그 근거에 의해 나를 공격한다.

* 용사의 눈에는 용사가 보이고, 메뚜기의 눈에는 메뚜기만 보인다.

나를 하찮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내 이웃도 공동체 구성원도 곤충 메뚜기로 보인다. 내가 나를 중요한 사람, 용사로 본다면 내 눈에는 모두가 용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시각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의 모습도 나에게 달려 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

4. 존재 자체를 보는 예수님의 눈이 떠져야 한다.

예수님의 눈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눈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발견했다. 삶의 의미를 찾았고, 약속을 향해 나아갔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그리고 조이풀을 어떻게 보고 있나? 온 열방을 선교하는 강력한 교회, 약속의 땅을 찾아올 교회, 모든 사람들의 소명이 회복되고 꿈을 찾는 교회로 보아야 한다. 결국 비전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명심하자. 약속의 땅은 구경하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땅이다. 아멘.